

Q 안녕하십니까?
월간양돈지의 질의응답란을 보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임신돈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잔 경험을 일으키며 식욕이 부진하고, 하루이

틀 누어만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무슨 이유 일까요?
이곳은 소규모 농장이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군 원당 원흥3리 498-5
(하종하 씨택)박 병 섭>

A 보내주신 질문 내용에서 임신돈의 임신 증상이 미세한 경련과 식욕부진 그리고 하루이틀 누어만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야외 질병을 여기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답변이 될지 염려가 됩니다.

보통 돼지가 어떠한 감염성 질병에 걸리게 되면 돼지는 대개 열을 동반함과 동시에 가벼운 몸떨림을 갖어오고 피부가 꺼칠해지면서 민첩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람이 체온상승을 수반하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을 때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좀더 자세한 관찰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 一. 돼지의 체온, 발육상태, 임신일령 등.
- 一. 사료는 무엇을 먹고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는지.
- 一. 백신접종은 어떤 종류를 접종하고 있으며 언제 접종했는지.
- 一. 과거에 어떤 종류의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
- 一. 한 돈사내의 다른 임신돈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 一. 인근 양돈장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기타 등등의 가급적 상세한 내용이 첨부 되

어야 합니다.

굳이 편지의 내용만으로 진단을 추정하건데, 최근 양돈농가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돼지콜레라”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군요. 최근 각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환절기를 맞아 더욱 번질것이 우려되어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10월 10일을 기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돈사내외의 소독과 백신접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온이 상승하며(40°~42℃)가벼운 몸떨림이 오고 활기가 없어지고 먹는 사료의 양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전혀 먹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에 이어 기동을 하지 못하고 강제로 일으켜도 비틀거리다가 곧 깔짚등에 몸을 숨기고 누워만 있습니다. 변은 초기에는 발열과 동시에 변비증상을 보이다가 설사를 하고 가끔 토하기도 합니다.

눈에는 충혈이 되고 눈곱이 끼고 운동신경에도 장애를 가져와 불규칙적인 근육의 경련을 수반합니다.

피부에는 발열이 계속됨으로써 복부, 콧등, 귀, 다리사이 등에 붉은 반점이 생겨 나중에는 검푸른 색으로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콜레라에 걸리게되면 빠르면 7일이내에, 늦으면 한달정도 지나서 죽게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까지의 질병경과(귀하의 농장에서 나타난 돼지의 임상증상 및 그후의 경과 등)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어느정도 일치하는지요?

돼지콜레라의 감염으로 의심이 되면 가급적 빨리 인근 수의사에게 문의 하여 적절한 방역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돼지콜레라는 매우 무서운 질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원인치료가 돼지 앓을 뿐만 아니라 사육하고 있는 전돈군(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에 감염될 뿐만 아니라 삼시간에 인근 농장까지 전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돼지의 이동을 금지하고 돈사내외의 시설 및 기구 등을 가성소다나 크레솔과 같은 강력한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외부의 차량, 사람의 출입도 제한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자돈의 백신접종은 반드시 초유먹이기 전에 접종하여야 합니다.

임신돈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는 임신부터 분만까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참고적으로 임신돈의 위생적인 일반관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돈의 위생적인 사양관리의 요점은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는 것과 발, 발굽의 사고방지 와 분만, 포유에 필요한 균형있는 영양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적인 사료 급여 등이다.

임신돈은 보통 전후반기로 나누는데 중부후 임신 12주까지를 임신 전반기라 말하며 그이후부터 분만시까지 후반기라 합니다. 임신초기에는 수정란이 이동하여 착상하는 시기이므로 임신돈의 사양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임신후반기에는 태아의 중식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적당량의 영양분을 고루 공급해 주어야 하며 지나치면 비대하여 난산의 위험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돈의 관리요령은

1. 임신돈의 돈방내 적절한 두수 수용.
1. 충분한 운동과 일광욕 실시
1. 각종 예방주사 적기 실시
1. 자극성 물질(감자덩굴, 부패사료 등) 급여를 피하고 청조나 사일레지를 다량 급여
1. 사료급여는 사료 1kg과 물 3kg의 비율로 섞어서 먹임으로써 위궤양을 방지한다.
1. 임신돈의 발육상태에 따라 사료량은 다소 가감해야 함.
1. 중부전후시기의 임신돈이 너무 살이 쪼면, 새끼의 수가 적어지며 임신후기의 경우 살이 쪼면, 난산을 이르기 쉽다.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끼에 물리적 압박을 주어 정상적인 새끼를 분만하지 못합니다.
1. 분만돈사에 옮기기전 몸소독 및 외부기생충 구제 등이다.

각종백신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적절한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확히 접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용 백신이 생산되어 시판되고 있는 대상백신은 돼지 콜레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일본뇌염, 돼지 파보바이러스감염증 (이상바이러스백신) 돼지 단독, 돼지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성폐염, 헤모피루스페염, 돼지대장균증(이상은 세균성백신이며, 단미 또는 혼합백신) 등이며 이들 백신은 분만전의 모돈에 접종되어 충분한 면역 항체를 생산케하여 임신돈자체의 질병예방은 물론 분만후 어미돼지의 젖을 새끼돼지에 먹여서 새끼돼지에 면역항체가 옮겨져서 새끼돼지를 여러 질병으로 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임신돈의 관리는 물론 양돈 전반에 관한 질병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답자 : 농촌진흥청 가족위생연구소

병독과장 김용희 박사)